“‘SSM 규제법’ 하루빨리 처리하라”

〈기업형 슈퍼마켓〉

국회통과 지연에 편법진출 잇따라… 지역 소상공인 조속처리 촉구

與野 ‘골목상권 진출 규제-대·중기 상생협력법’ 동시처리 입장차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와 SSM 편법 진출 시도가 잇따랐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쌍둥이 법안’인 만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상생법’ 개정안을 한·EU FTA 협상 협상 이후에 처리하는 ‘분리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EU FTA가 예정대로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 자동차업계의 반대가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 EU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측의 설명이다.

당정간 FTA 협정문 서명-비준동의-발효의 수순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SSM 법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곳곳에서는 SSM진출에 따른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문을 열기로 했던 삼성테스코의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치평점과 풍암점은 사업조정 일시정지 상태로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과 함께 ‘광주시 SSM 사업조정신청협의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지난 6월에는 광주시 북구에 대형마트 개점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자치구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이어 롯데쇼핑이 사업조정 대상이 안 되는 가맹점 형태의 SSM을 내세워 남구 노대동에 추가 진출을 하는 등 지역에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끊이지 않았다.

김경남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유통·상생법 개정안 동시처리와 함께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도 전통시장 영업 제한 구역을 기존의 반경 1㎞에서 500m로 양보하고 품목 제한을 포기하는 등 많은 것을 양보했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한 부분이니 이번에는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SSM 규제강화법=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구성돼 있다. ‘유통법’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상권 인근 500m 이내에 SSM을 개설할 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상생법’은 SSM의 진입으로 인해 중소 상인들의 영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판단될 때 SSM의 사업 정지를 중기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변으로 간 현대 아반떼 현대자동차가 지난 7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아반떼 영비치’에서 개최한 2010슈퍼모델 비치웨어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십자, 제약 40년 1위 ‘동아’ 아성 흔든다

화순에 백신생산공장… 상반기 매출액 1위

화순에 백신 전용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녹십자가 올 상반기 제약사 매출액 1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녹십자의 강력한 도전으로 제약업계에서는 40여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동아제약의 아성이 흔들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 결산 결과 녹십자는 올 상반기 4475억원의 매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9%나 늘어나면서 국내 제약사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동아제약이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한 4224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한양행 3315억원, 대웅제약 3287억원, 한미약품 3033억원 순이었다.

신종플루 특수 이전만 해도 제약업계 5위였던 녹십자는 신종플루 백신만으로 지난 1분기에만 1560억원의 매출을 거둔데다 적기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 1099억원은 제약업계 사상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녹십자가 올린 영업이익 신기록 1199억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호조에 따라 녹십자는 내년께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업계 첫 ‘매출 1조’ 타이틀을 둘러싸고 동아제약과 벌이고 있는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게 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트렉스타 굿”

미국 유명인사들 네스핏 제품 극찬

(주)트렉스타의 네스핏 제품이 미국의 유명인사들로부터 호평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트렉스타에 따르면 최근 트렉스타가 진행한 네스핏 피팅행사에서 올해의 내셔널 지오 그래픽 모험가로 선정된 트립 제닝스는 “네스핏을 신고 5대륙 지역을 여행했는데 전혀 발이 아프거나 피곤하지 않았다”며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것이다”고 미국 현지 유통망인 트렉스타 USA를 통해 밝혔다.

미국의 릴 아웃도어스 TV 진행자인 크리스 베일리도 “네스핏은 자연 그대로의 발 상태를 유지해준다. 내 인생에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극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햇살론’ 광주·전남 32억 대출

전국 비중 7% 그쳐… 연소득 5000만원 이상 제한 검토

지난달 26일 출시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53%(233억원)나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의 전국 비중은 7%(32억원)에 그쳤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판매된 햇살론 대출규모를 16개 광역시도별로 집계한 결과 경기도(102억원), 서울(98억원), 인천(33억원)으로 이들 지역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였다. 반면 비수도권 비중은 47%에 머물렀다.

광주의 대출액은 19억원(4%)으로 전국 7위였고, 전남은 13억원(3%)로 12위였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의 대출액이 25억원(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22억원), 경남(20억원) 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는 일부 신협 등이 전산시스템 정비를 통해 추가로 취급하게 되면 지방의 대출실적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6일 출시된 햇살론은 지난 3일까지 모두 5487명이 43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789만원을 빌린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저신용자라도 가구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햇살론 대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서민전용 대출이라는 햇살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소득에 따라 대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서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민정책을 집행중인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구소득이 최대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햇살론 대출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상무지구 ‘우리밀 칼국수 프랜차이즈’ 오픈

우리밀광역클러스터사업단(우리밀식품(주))이 10일 전국 최초로 ‘우리밀로(路) 칼국수 밀고(GO) 말고(GO)’라는 브랜드로 우리밀 칼국수 프랜차이즈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오픈한다.

‘우리밀로 칼국수 밀고 말고’는 우리밀 칼국수 프랜차이즈 1호점으로, 칼국수는 물론 만두류, 스파게티, 콩국수, 막걸리 등 우리밀을 이용해 개발한 무화학 조미료, 무색소, 무방부제 메뉴 9종을 판매한다.

우리밀광역클러스터사업단은 10일 본격 오픈을 앞두고 9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개최하며, 향후 전국에 체인망을 구축해 우리밀 보급과 안전한 밥상 운동과 그와 관련한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주간 증시 포커스

원화 강세 수혜주 눈여겨 볼만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을 목전에 두고 저항선 돌파를 위한 모멘텀 부재 등으로 발목을 잡혀있지만, 이번 주는 각종 여건이 긍정적이어서 재차 반등이 예상된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주요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막판 실적을 공개할 기업이 남아 있어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동결이 예상돼 지수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도 8주 연속으로 한국관련 뮤추얼 펀드에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증시의 흐름도 외국인 매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달러 약세와 중국 경기의 회복 기대감으로 비철금속 등 원자재나 자원개발 관련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는 외국인 매수 재개를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가 1,8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기술주나 자동차 관련 종목 움직임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원화 강세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원화 강세 수혜주, 조선·해운·비철금속·보험·은행·내수종목 중심의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먼저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 등 전기차 관련주 등에 대해서도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수의 반등에도 펀드환매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1,800 돌파에도 종목별 흐름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